

교훈

1. 우리는 제세주 수운천사님을 모양한다.
2. 우리는 유불선 합일의 대도를 천하에 전도한다.
3. 우리는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의 삼대원을 성취한다.
4. 우리는 사람 섬김을 하늘님 공경하듯이 한다.
5. 우리는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 지상천국을 건설한다.

# 수운교보

• 발행인: 총무원장 김 덕 환  
 • 편집주간: 부총무원장 박 신 규  
 • 발행처: 수운교본부  
 • 발행소: 34059 대전시 유성구 지운로 245번길 80(추목동)  
 • 창간일: 수운강생 175년(1996) 11월 15일  
 • 전화 / 팩스: (042)861-1771·862-9436/862-1772  
 • 인쇄처: 삼성디자인기획 (042)221-3111  
 • 홈페이지: <http://www.suwoongyo.or.kr>

## 백중위령재 봉행

8월 15일(음 7. 15) 오전 10시 법회당에서 백중날을 맞이하여 27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경건하고 엄숙하게 위령재를 봉행하였다.

각 지부의 천법당에서도 백중위령재를 봉행하였다.

이날 총무원장은 설법을 통해 부모의 은덕을 갚고자 할진대 실로 끝이 없도다. 열 가지 은혜와 백 가지 행실로서 보답할까? 한 평생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 봉양하며 부모

님 섬기기를 하늘님 같이 하고 공경하는 생각으로 발원하며 부모로 하여금 안락을 얻게 하고 영원히 신선의 나라에 살게 하여야 가히 하늘을 통한 큰 효도임을 강조하고 효행이 만 가지 공덕의 으뜸이고 시작이라고 경념총화 효친장을 인용하여 설법하였다.

이번 위령재는 본부 정·경위사와 정필사들의 집례로 위령재를 봉행하였다.

이날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된 광복절이기에 독립유공자와 순국선열에 대한 합동 위령재를 봉행하는 등 매우 뜻깊은 의미가 담겨있었다.

백중은 부처님의 10대 제자인 목련존자가 안거가 끝나는 날 스님들과 함께 공양을 올려, 생전의 업보로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하였다는 일화에서 비롯됐다.

이때부터 백중은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인연 맺은 모든 영가를 천도하는 날로 인식되어왔다. 돌아가신 영가님들이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시면 여한이 없겠지만 자기 생을 다 살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여한이 남는 법이다. 나와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살 나이가 많은데 억울하게 뜻하지 않은 병고로 또는 교통사고나 불의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난 돌아가신 분들에게 백중기도를 통해서 천도해주면 살아 있는 우리도 큰 공덕을 쌓는 것이리라!



이 다음 세상에 우리도 공덕 닦아 극락세계 좋은 세상에 태어나길 기원해보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울고 웃는 마음 또한 보시고 큰 공덕이라는 것을 백중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웃이 속상해하고 힘들어 할 때 옆에서 격려하고 다독여준다면 그 아픈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웃이 좋고 친구가 좋은 법이다.

하루에 한 가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도인(道人)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백중은 돌아가신 영가들을 천도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우리가 큰 기도 공덕을 쌓는 날이기도 하다. 아무쪼록 교인 동덕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늘 행복하고 웃음꽃 피어나는 수운교인이 되기를 불천사(佛天師)님께 발원한다.

백중 위령재(우란분절)는 자기가 지은 업으로 인하여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천사(佛天師)님께 공양을 올려서 영가님들이 고통과 속박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는 재이다.

백중위령재는 매년 법회당에서 먼저 가신 부모형제 권속들과 순국선열 및 전몰 군·경 등 국가사회와 인류평화를 위하여 희생하신 모든 분들에 대한 합동 위령재로 봉행하고 있다. 또한 나와는 직접 인연은 없더라도 밝은 곳으로 가지 못 하고 어두운 허공을 떠도는 무주교혼 영가들의 천도를 기원하는 재이기도하다.

백중은 우란분재라고도 하는데 ‘우란분’은 ‘거꾸로 매달린’의 뜻이고 ‘재’는 ‘베푼다’는 뜻이다. 즉 가난한 이에게 널리 베풀어서 거꾸로 매달려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한다는 뜻이다.



## 칠석기도 봉행



8월 1일(음 7월 1일)부터 8월 7일(음 7월 7일) 오후 5시에 삼태성과 28속의 칠성을 모신 도솔천에서 7일간 칠월 칠석기도를 6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이태화 경위사와 김승천 정위사, 문재현 정필사의 집례로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칠월 칠석기도는 치성광여래께 정성어린 공양을 올려 모든 복의 문을 여는 인연 맺는 기도로서 가내 평안함과 모든 액란을 소멸하고 자손번창과 수명복록을 염원하는 기도이다.

이번 7일간의 칠석기도는 광덕문 좌우 백일홍(목백일홍) 한자어로는 자미화(紫薇花)라고 하는 90여 년 된 나무에 붉은 꽃이 만발하여 도솔천궁이 더욱 장엄하고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기도기간 중 8월 3일 오후 2시부터 천둥 번개와 함께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다가 기도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부터 맑은 하늘을 보이며 언제 비바람이 있었느냐는 듯이 청명한 날씨를 보이며 무더위도 사라졌다. 칠월칠석기도는 매년 본부와 각지부의 천법당에서도 많은 교인들이 동참하여 기도에 정진하고 있다.

도솔천에는 하늘님과 일광(성덕군) 월광(순덕군)님과 북두칠성을 비롯한 사대 칠성과 삼태육성이 봉안된 곳으로 이곳에서 칠석기도를 봉행하는 것은 매우 뜻이 깊다.

칠석기도는 치성광여래 부처님께 정성스런 재를 올려 그 인연공덕으로 재앙을 막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원하는 것이다. 북두주(北斗呪)는 칠석기도때 봉독하는 진언이다. 칠석날은 하늘의 오작교에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 사랑을 이루는 날이며 치성광여래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내려오시는 날이다. 이날 지극한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를 올리면 불천사(佛天師)님과 치성광여래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전생금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우리 모두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다.



## 교인화합 한마당놀이 및 경로잔치



6월 2일 수운교 본부 사무실 앞 잔디광장에서 김덕환 총무원장과 정기백 봉사단장을 비롯한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교인화합 한마당놀이 및 경로잔치가 있었다.

모처럼 뜻 깊은 자리를 같이한 참석자들은 연예인들과 같이 흥겨운 노래와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정기백 봉사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즐거운 시간을 같이하며 교인상호 간에 서로 화합하고 위로하며 신앙생활의 새로운 활력을 발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신도회와 부녀회의 협조를 얻어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마련하였으니 맛있게 드시고 옆 사람과 서로 답소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되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인사말을 하였다.



## 수련 법회 안내

198(2019)년 수련법회는 수운교 본부와 육지지부 및 제주도 감무원에서 각각 이루어집니다.

### ■ 본부와 육지지부

일시 198(2019)년 9월 21일 오전11시 ~ 22일 오후 5시(1박 2일)  
장소 수운교 본부 복지관(21일), 보령지부(22일)

### ■ 제주특별자치도 감무원

일시 198(2019)년 9월 28일 오전 10시 ~ 오후5시  
장소 제주도 일도지부

## 조국평화통일축원 3·7 특별기도 봉행

- 일시 : 198. 9. 26 ~ 10. 16(21일간)
- 장소 : 본부 봉령각 및 지부 천법당

매년 수운교 본부와 각 지부 천법당에서는 우리들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통일과 사회 안녕을 위한 특별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화통일과 사회 안녕을 위한 특별 기도에 동참하시어 뜻 하신 모든 일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불천사(佛天師)님께 기원합니다.

# 수운교 독립운동사

## - 선교리 사건 -

수운교인 금병산에 올라 '조선독립 만세' 외쳐

1939년(기묘년) 수운교(홍릉사) 내에 '암무애'라는 자를 강사 명분으로 상주시키면서 항시 교중의 동태를 감사하였으며 1939년 제령 19호를 반포하며 조선 민사령을 개정하여 한민족 고유의 성명을 폐지하고 여러 가지 억압정책으로 창씨개명을 단행하였다.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각급 학교에 입학이 허가되지 않았고 각 행정기관에서 민원 등 사무취급이 거부되고 식량과 물자를 배급 받을 수 없고 조선식 성명의 우편물, 화물수송을 전면 금지하는 등 모든 생활 수단을 할 수 없도록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운교의 탄압은 더욱더 극심하여 수 없는 조사와 구금이 자행되었지만 수운교인들은 형식적으로나마 따랐을 뿐 정신적으로는 일본 진중불교를 신앙하지 않았다.

야음을 틈타 금병산 12봉에 올라 수운교 의식으로 치성을 드리고 독립을 기원하며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1941년(신사년) 5월 철원사건으로 29명의 교인이 구금 상태인 가운데 1943년(계미년) 5월경에 수운교의 중진교인 오무호(현 직제 법사원장)가 기도 중에 현기를 보였다.

양위 선생님이 전국의 교인들을 도솔천에 집회시켜 영산법회를 마친 뒤 일행을 거느리고 총독부에 이르러서 총독부를 축출하여 일본천황이 항복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성문화하여 전국의 교인들에게 회람하여 봉기를 기획하였으나 일본의 경찰에 발각되어 평양 선교리 경찰서와 대전경찰서가 합동으로 수운교 본부를 수색하여 오무호 외 8명이 검거되었다.

이들은 모두 평양 선교리 경찰서로 연행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1년 2개월의 옥고를 치루었다.

이때에 투옥되었던 분들은 오무호(자 오학수, 증손 오광선), 정창모, 양근성, 강주희(자 강신필), 박하규(자 박복수), 이영호(자 이원석), 김영두(손 김왕준), 김도선(손 김성주), 변홍식(손 변동주) 등 9명이었다.

그 중 강주희는 고문의 여독으로 귀가 후 곧 서거하였다. 이분들에 대해 본부에서는 보훈처에 서훈 신청을 기획하였으나 송치기록, 재판기록, 수형기록 등이 전무한 상태이고 조회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일제가 문서를 파기 말살한 것으로 보여져 안타까운 현실이다.

# 합동 군사대학교 방문



7월 31일 김덕환 총무원장과 박신규 부총무원장 등은 3군대학 조한규 총장과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학장 등 지휘관을 예방하고 교육현황을 청취하였다.

이날 김 총무원장은 교육생들에게 분마(奔馬)의 기상과 각오로 구국간성

(救國干城)과 보국안민(輔國安民)의 동학혁명정신을 계승하여 나라를 잘

보위하고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한 군인정신을 심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솔밭공원을 군·관·민 정신문화의 휴식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꾸고 활용하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 항일 독립유공자 선배 추모 기념행사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금년 10월 14일(서울대 개교기념일 전날)에 맞추어 항일 독립유공자 선배를 기리는 기념행사를 갖기로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교단의 독립운동가 오복원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독립유공자 선배들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고 학술행사, 패널전시회 등이 있을 예정이고 중장기 사업으로 기념비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서울대 황상의 교수가 유족들에게 전해 왔다고 한다.

오복원 지사는 1901년 경성의학 전문학교(현 서울대의학부)를 독학으로 수료하였고 1909년 매국노 총리대신 이완용을 처단하기 위해 이재명 등과 함께 12월 23일 오전 11시경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매국노 총리 이완용에게 중상을 입히고 체포되어 1910년 경성 재판소에서 징역 10년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루었다.



정부에서는 오복원 지사의 공을 기리어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한편 지난 8월 11일(일) 11시에 서울 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서 오복원 지사의 추모식이 있었다.

# 정신문화 탐방

6월 17일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조한규 육군 소장과 교육지원부장 이태락 대령 등 합동대학 간부들이 김덕환 총무원장을 예방하였다. 이날 오창윤 교무부장은 도솔천과 봉령각 법회당 등 수운교 성지를 안내하며 수운교의 역사와 문화재에 담겨있는 민족정신과 동학사상에 대하여 현황 설명을 하였다.



# 경 전

## 제1장 明修身

### 몸 닦음을 밝힘

1. 건곤이 정위에 이기상합하고 오행이 상생하여  
 乾坤 定位 二氣相合 五行 相生  
 탄강증민하니 귀천이 정의오 청탁이 수의니라  
 誕降蒸民 貴賤 定矣 清濁 殊矣

건곤이 위를 정함에 두 기운이 서로 합하고 오행이 서로 상하여 크게 증민을 내니 귀천이 정하고 청탁이 다르니라.

【훈】 건곤(乾坤)은 곧 천지요, 이기(二氣)는 곧 음양이요, 오행(五行)은 수화목금토요, 탄(誕)은 넓고 큰 것이요, 강(降)은 내리는 것이요, 증(蒸)은 많은 것이요, 귀(貴)는 영화가 흠족하고 즐거움이 족한 것이요, 천(賤)은 곤궁하고 위약한 것이요, 정(精)은 고명한 것이요, 탁(濁)은 혼잡한 것이다.

【석】 무극이 태극을 생하니 이 천지가 그 위를 정하였는 지라 비로소 그 위를 정함에 음양을 합하고 오행을 생하여 천지에 흥대한 은혜로 못사람을 낼 때에 귀하고 천한 바탕을 정하고 맑고 흐린 성품을 명하느니라.

2. 명지이오성하고 정지이룬강하니 수기오성이 시위술성이오  
 命之以五性 定之以倫綱 守其五性 是爲率性  
 행기윤강이 시수인사니 이자지간에 조차불이하라  
 是修人事 二者之間 造次不移

오성으로써 명하고 윤강으로써 정하니 그 오성을 지키미 이 술성이 되고, 윤강을 행함이 이 인사를 닦음이니 두 가지 사이에 조차라도 옮기지 말지니라

【훈】 오성(五性)은 오행의 성품이 됨이니, 수(水)는 유순한 성품이 되고, 화는 태강한 성품이 되고, 금은 편협한 성품이 되고, 목은 화한 성품이 되고, 토는 인후한 성품이 되느니, 혹 다 품수한 자도 있으며 혹 하나만 품수한 자도 있느니라. 윤강(倫綱)은 오류과 삼강이니 부자유친(父子有親)하고 군신유의(君臣有義)하고 부부유별(夫婦有別)하고 장유유서(長幼有序)하고 붕우유신(朋友有信)이니 이는 오류이요, 삼강은 아버지가 자식에 베풀기가 되고, 임금이 신하에 베풀기가 되고, 지아비가 지어미에 베풀기가 됨이라. 이자(二者)는 술성과 인사요, 조차(造次)는 잠깐 사이라.

【석】 오성과 삼강과 오류으로 사람이 처음 날 때에 명하니 능히 그 본성을 거느리지 못하면 어찌 해서 그 삼강을 세우며 오류를 밝히리요, 만일 이 세 가지를 능히 한즉 이 인사를 닦음이니, 항상 생각하여 비록 잠깐 사이라도 마음을 이에 옮기지 아니하면 일이 착하지 않음이 없으리라.

3. 솔기본성이 시위수도 | 요 명기인사 | 시위수덕이니  
 率其本性 是爲修道 明其人事 是爲修德  
 수도수덕지요는 재어정심정기하니라  
 修道修德之要 在於正心正氣

그 본성을 거느림이 이 도를 닦음이 되고, 인사를 밝힘이 이 덕을 닦음이 되니 도를 닦고 덕을 닦는 중요함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기운을 바르게 하는데 있느니라.

【훈】 본성(本性)은 곧 다섯가지 성품이라. 도(道)라 함은 천리와 인사에 당연함이요, 덕은 천리에 밝고 인사 닦아서 신인(神人)으로 더불어 서로 합하는 이름이요, 정(正)은 순전혼일함이라, 마음은 일신의 주장이요 만사를 경영하는 문이며, 기운은 일신의 용이니, 마음이 발하여 성품이 되고 성품이 발하여 기운이 되느니라.

【석】 도를 닦고 덕을 세우는 근본이 마음과 기운이 순전 혼일한데 있음을 말함이라.

4. 심본허령하여 수물변이하니 화복지원이오 경영지추라  
 心本虛靈 隨物變移 禍福之源 經營之樞  
 일유부정하면 함어사곡이니라 기지위언은 혼원허장하여  
 一有不正 陷於私曲 氣之爲言 渾元虛壯  
 무불조응하니 정즉유성이오  
 無不照應 正則有成

마음이 근본 허령하여 물건을 따라 변하고 옮기니 화와 복의 근원이요, 경영에 지도리라. 한번 바르지 못함이 있으면 사곡에 빠지느니 기운이라 말함은 혼원하고 허장하여 비치여 응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바르면 이름이 있고 바르지 않으면 패함이 많으니라. 마음이 바르고 기운이 바르면 능히 도와 덕을 이룰지니 마음과 기운을 한결같이 바르며 도와 덕을 한결같이 닦아서 그 오성을 지키며 그 윤강을 밝힘이 이 몸을 닦음이 되느니라.

【훈】 형상키 어려운 것이 허령이 되느니라. 함(陷)은 들어가는 것이요, 혼원(渾元)은 뻗쳐 일어남을 이름이요, 허장(虛壯)은 허하고 장대함을 이름이니라.

【석】 그 형상키 어려운 마음을 굳게 하여 일신의 주장을 삼고 허하고 장대한 기운을 발용하되 순전혼일하여 일호도 사곡(私曲)이 없고 정대하게 나아간즉 그 몸이 닦아 지니라.

명수신하니라  
 明修身

몸 닦음을 밝힘이니라.

<이어서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

## 제11회 겨레얼 고등학생 백일장 대회, 대상에 김규리 광문고 학생

(사)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이사장 박성기)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11회 겨레얼살리기 전국 고등학생 백일장 시상식이 7월 13일(토) 서울 겨레얼본부 연수회관에서 열렸다.

올해로 11회 째를 맞이하는 겨레얼살리기 전국 고등부 백일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잊혀 가는 겨레얼을 진작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백일장은 시, 수필, 독서논술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의 대주제는 <3.1운동 100주년과 겨레얼>이었다.

노길명 교수 등이 최종 심사를 하였다. 심사 결과에 따라 국무총리상, 각 부문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외 금상, 은상, 동상을 시상한다. 이번 대상은 시부문에 응모한 광문고등학교 1학년 김규리 학생이 차지하였다. 심사를 맡은 윤석산 교수는 제목이 바로 '민(民)'이고, '민'이라는 한자어를 제목으로 삼은 이 시임에도 우려했던 바와는 다르게, 매우 유려하게 시적 전개를 해나갔다고 평가하였다. 또 토론대회 부문에서는 명덕여고 전성영·이유림 학생이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 겨레얼 백일장대회 대상 (국무총리상) 수상작

- 김규리(서울 광문고등학교 1) -

민(民) 열사께,  
삼월 첫째 날 나비를 보았습니다.  
그의 고운 날개웃이 깃발인 양 펴려였습니다.  
당신께 안부 전해 달라 부탁했습니다.  
당신은 아실까요,  
당신의 작은 날개짓이  
민(民)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들을 몰아낼 폭풍이 되어  
민(民)을 주(主)로 만들었습니다.  
씨를 깨우고  
싹을 틔워  
무궁화를 피워냈습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얼굴을 하고  
어떤 목소리로 만세를 외쳤을까요.  
당신이 만드신 이 국(國)에,  
당신이 만들고자 한 이 국(國)에,  
나는 이렇게 발 딛고 서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얼굴을 하고  
어떤 목소리로  
이 어린 이의 글을 읽을까요.  
당신께 편지 보냅니다.  
민(民)이  
민(民)께  
민(民)의 나라에서  
당신께 편지 보냅니다.



## 금병 봉사단 경로노인잔치에 참석



삼호자 이영주

수운교에서 처음 시도해 보는 큰 행사일수도 있는 노인잔치를 한다고 하여 초청을 받고 아침 오전엔 눈에 가지 거름을 주고 부랴부랴 수운교 본부 사무실 옆 행사장으로 갔다.

11시부터 시작인데 많은 분들이 모이셨다. 수운교인이 아닌 지역 주민들도 초청을 하여 모인 분들이 우선 간단한 음료수 정도로 시간을 보내다 정식행사를 시작했다.

김옥현 부법사원장의 사회로 내빈 소개가 있고 금병산 봉사단장인 정기백 님의 인사와 총무원장의 격려사로 1부 행사를 마치고 2부는 점심식사로 갈비탕을 봉사위원들의 민첩한 도우미로 참석하신 분들께 대접을 했다. 처음 계획은 150여 명 정도로 잡았는데 200명이 넘게 오셨다.

3부 행사는 식후에 초청가수 노래와 참석하신 분들의 노래자랑과 장기자랑이 있었으며 사이사이에 경품행사도 재미를 더 했다.

협조해주신 분들이 많아 푸짐한 상품들을 한 아름씩 받아가면서 흡족해하는 많은 분들의 얼굴에서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사회를 김옥현 부법사원장의 능수능란한 솜씨는 어느 다른 행사의 진행자보다 참신하면서도 정감 넘치는 유머가 돋보였다.

처음 시도하고 실행에 옮긴 행사지만 나무랄데 없을 정도로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다고 칭찬하고 싶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매년 노인잔치(경로잔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다.

수운교인이 아니라도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고 옛날 탄동면 추목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포덕하는 마음으로 권하고 싶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게 질서를 유지해준 봉사단 위원들과 부녀회, 신도회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하고 복된 하루가 되어 주기를 불천사님께 빌어본다.

2019. 6. 2

고문 삼호자 이영주



## 도솔천 앞에서

오늘도 난 솔밭 길을 걸어서  
내 마음에 안식을 찾으려 갑니다.  
12폭 병풍모양 둘러쳐 있고  
고즈넉이 잠잠한 금병 산하에  
장엄하고 엄숙하게 자리한  
지상천국 상징 도솔천!  
솔바람에 실려 그윽히 들려오는  
풍경소리! 목탁소리!  
그리고 장엄한 범종 소리가  
이 발길을 재촉합니다.  
도솔천 광덕 문 앞에 발길을 멈추고  
두 손 모아 배례하고 참회하면서  
서원(誓願) 담아 간절히 발원합니다.  
무지함의 고해중생 살피주소서!  
깨달음의 지혜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지엄한 법 알지 못하고  
미물처럼 살아가는 중생이지만!  
불천(佛天)의 하늘님께 몸과 마음 조아려  
시천주(侍天主) 참 뜻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 소풍 나들이 마치는 그 날까지  
해맑은 미소의 환희 심을 주소서!



교화부장 정이순



# 동정

## ☘ 시향제



6월 7일(음 5월 5일)오전 10시 단오절을 맞이하여 금병산 공설모역에서 김덕환 총무원장과 유가족 등이 동참한 가운데 합동으로 영가님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시향제를 봉행하였다. 매년 단오절은 음력 5월 5일 이날은 1년 중 가장 양기가 풍성한 날로 한 해의 농사를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게 풍년을 기원하는 날이기도 하다. 시기적으로 더운 여름을 맞이하기 전 초하(初夏)의 계절이며,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이기도 하다.

## ☘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정기총회

6월 28일 오전 11시 서울 동대문구 민족종교협의회 회의실에서 제36차 정기총회 및 64차 정기이사회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박우균 회장의 인사에 이어 회원변동보고 및 임원개선과 2018년도 감사보고, 2019년도 세입세출 승인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 ☘ 문화재 답사

8월 1일 유성구청 문화재 담당 주무관의 안내로 대전광역시 문화재 위원 이달훈 공학박사와 이동영 위원 등이 도솔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지답사를 하였다. 이들은 도솔천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류그물망 보수 등 문화재 관리를 위한 세밀한 조사를 하였다.

## ☘ 한밭문화마당

6월 2일 한밭문화마당 회원들이 도솔천과 봉령각, 법회당을 탐방하며 우리의 문화유산과 동학정신을 탐구하며 문화재 해설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한밭문화마당은 “대전의 역사와 문화의 이해는 대전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대전 지역의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며 주변을 청소하고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재를 이해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한밭문화마당의 모든 회원은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담아 자원봉사로 활동하며 단체의 운영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 동학정신 탐구

8월 17일 3군 합동군사대학교 박천익 해군대학장과 국립목포대학교 박민서 총장 내외분이 수운교의 민족사상인 동학정신을 탐구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

## ☘ 프랑스 소르본 대학 엠마뉴엘 페랑 교수 인터뷰 방문



8월 2일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 엠마뉴엘 페랑 교수가 대전문화관 장재경 선생의 안내를 받아 수운교의 정신문화와 동학사상을 탐구하기 위하여 도솔천, 봉령각, 법회당, 사무실 등을 둘러보고 오창운 교무부장과 인터뷰하였다.

엠마뉴엘 페랑 교수는 우리 인류의 생활에서 정신문명과 과학문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많은 질문을 하였다. 교무부장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사람이 가장 존귀한 것이므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학문명의 발전이어야 한다. 자칫 인간존엄성을 무시한 과학문명의 발전은 인류를 해치는 핵폭탄 등 살상무기의 양산으로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 고 강조하며 “정신문명은 과학문명의 상위개념으로 동양의 종교철학은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 수운교가 지향하는 목적도 온 인류가 일가 동락하는 도덕세계의 지상천국 건설에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목적도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동양의 종교 철학에 대하여 답소를 나누었다.

소르본 대학은 1253년 창립된 이래 역대 왕과 권력자들의 보호를 받아온 프랑스 교육의 산실이다. ‘소르본’은 문학·의학·약학·법학 등을 가르치는 파리 1대학(소르본-판테옹), 파리 3대학(소르본 누벨), 파리 4대학(소르본), 파리 6대학(피에르 마리퀴리)을 통틀어 이르는 명칭이다. 빅토르 위고, 파스퇴르, 베이컨 등 유명인사들을 배출했다.

## ☘ 봉사단 활동



8월 4일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천사님 묘소, 산제단과 공설묘지 등 삼복의 무더위 무성하게 자란 잡풀과 진입로를 가로막은 잡목을 제거하였다. 전날 칠석기도 중 비바람에 의해 산제단

진입로에 아카시아 잡목이 진입로를 가로 막는 등 통행에 불편 사항을 해소하였다.

## ☘ 한국종교협의회 실무자 회의

8월 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종교협의회 사무실에서 각 종단 실무책임자 회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세계인류 평화를 위한 종교인의 역할과 각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교평화 세미나에 관한 협의 등을 하였다.

## ☘ 수능 및 각종시험 합격기원



8월 6일 오전 10시 봉령각에서 수능 및 각종시험 합격기원 100일 기도입재 하였다.

수운교의 기도처인 봉령각에서 매년 수능 100일 전에 수능 고득점으로 원하는 대학

에 합격하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시험 등 각종시험 합격기원 기도를 함께 올리고 있다. 이곳에서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인연으로 뜻하신 소원들이 뜻과 같이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매년 찾아 기도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백일동안 수험생들의 지혜충명과 학업성취 발원기도를 집례한 오영순 정위사는 설법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 정진하고 간절히 발원하면 불천사(佛天師)님도 감응하시어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수험생들을 위해 매일 아침 기도 발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 백일기도 종공

8월 8일 오후 2시 봉령각에서 지난 5월 1일 입재한 백일기도를 종공하였다.

## ☘ 부녀회

부녀회(회장 김은택)에서는 칠석기도와 백중위령제 공양을 위해 섬섬옥수의 손길이 매우 바쁘다. 7일간의 칠석기도와 부모 조상님과 순국선열 등 나라를 위해 몸 바친 호국 영령들을 위한 위령제에 동참하시는 많은 분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가정의 바쁜 일도 뒤로 미루고 복지관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손길은 숭고한 정신의 발로이다.

## 수운교 화순지부 권선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서남쪽에 위치한 수운교 화순지부 천법당 지붕 번와(翻瓦) 사업 및 개금(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화성(신중, 지장태화)불사합니다. 권선(勸善)하시어 무량공덕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 자랑스런 수운교인



홍로지부장 오동구

7월 30일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에서는 탐라자유회관 강당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국가발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연맹 창립 65주년을 맞이하여 정부표창 등 유공회원에 대하여 표창하였다.

이날 수운교 오동구 홍로지부장은 자유총연맹 창립 제65주년기념 유공 조직원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자유총연맹 조직 활동의 최고 판단기준은 국민민복(국민과 국가발전)에 있다.

홍로지부 김두현 동덕의 자부 홍은영씨는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제주시청에서 봉직하고 있는 홍은영은

- 유명인사 초청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강화, 공직내부 전문성 및 대외 신뢰성 제고
- 조직내부 소통체계 유연화를 통한 열린시정 구현
- 노·사 간 소통과 지원강화로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등 탁월한 업무수행 공적을 인정받아 2019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



### 성지순례



6월 15일과 16일 제주도 홍로지부 교역자와 교인 등 30여 명이 도솔전과 봉령각, 법회당 등 삼단을 차례로 순례하며 일상의 바쁜 일정을 모두 뒤로 하고 차분하고 경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정진하였다. 이들은 15일 제주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여 청주공항을 통해 본부에 12시에 도착하였다.

도착하여 간단히 점심공양을 하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도솔전을 비롯한 삼단에서 기도 봉행하였다. 이어서 오후 6시 저녁 공양을 마치고 저녁에는 봉령각에서 늦은 시간까지 기도 봉행을 이어갔다. 16일에는 오전 10시 범일에 동참하고 11시부터 교무부장으로부터 복지관에서 민족정신과 동학에 대한 강의를 경청하였다.



### 수운교 청정봉사단



수운교 청정봉사단(단장 김옥산)에서는 수운강생 198년 6월 19일에는 단원 13명이 제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취약 계층을 위한 여름 김장만들기 행사를 지원하였다.

7월 6일에는 단원 21명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최하고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에서 개최된 제12회 전국 장애인수영대회 행사장에서 경기 진행 및 행사 보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7월 18일에는 봉개지부에서 창단 9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8월 10일 현재 누적 봉사활동시간 88,053 시간을 달성했다.

매주 수요일 제주시 노인복지관에서 200인분 분량의 음식을 조리하여 노인들에게 급식을 하고 있고, 매주 토요일 독거노인 12분에게 반찬배달 등 지역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수운교를 널리 알리고 있다.



### 계·시·관

하반기 법회안내

〈문의 ☎ (042) 861-1771〉

● 초하루.보름기도	매월 음 1일, 15일	오전 7시 20분	3 단
● 백일기도	매월 음 27일	오후 2시	봉령각
● 수련기도	매월 음 1~7	오후 2시	봉령각
● 법일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법회당
● 백일기도입재	8월 27일 (음 7월 27일)	오후 2시	봉령각
● 인등이백일	9월 1일 (음 8월 3일)	오전 10시	봉령각
● 3.7평화통일기도	9월 26일 (음 8월 28일)	오전 10시	봉령각
● 교주열반일	10월 16일 (음 9월 18일)	오전 10시	봉령각
● 조왕재일	10월 27일 (음 9월 29일)	오후 3시	장 실
● 용왕재일	10월 30일 (음 10월 3일)	오후 3시	장 실
● 산왕재일	11월 2일 (음 10월 6일)	오후 3시	산제단
● 개교기념일	11월 11일 (음 10월 15일)	오전 10시	도솔천
● 위령재일	11월 12일 (음 10월 16일)	오전 10시	법회당
● 인등삼백일	12월 8일 (음 11월 12일)	오전 10시	봉령각
● 동지	12월 22일	오후 1시 19분	법회당

### 공·기도비를 납부합니다

공·기도비(7만원)는 수운교 교헌에 의하여 매년 음력 4월 15일과 10월 15일에 납부하는 교인의 의무입니다.

〈문의 ☎(042) 861-1771〉

농협 453116-51-010348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새마을금고 9002-1796-7840-6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 본부 국내 교인만 입금하고 지부교인은 소속지부에 납부바랍니다.

### 포덕성금 모금에 동참합니다

포덕성금은 3대원(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성취를 위해 교화사업을 하기 위한 성금입니다. 3대원 속득 성취를 위해 많은 분들이 성금 모금에 동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인 1만원 이상 자동이체하여 주시면 됩니다.

농협 453116-51-062203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 장학성금 모금에 동참합니다

장학성금은 수운교인 또는 수운교와 인연이 있는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주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성금입니다.

1인 1만원 이상 자동이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농협 453116-51-073795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 |                    |                    |
|--------------------|--------------------|
| ● 봉령군대인 강유진(子 강봉수) | ● 봉령군대인 박원규(子 박영서) |
| ● 봉령군대인 박창희(子 박종우) | ● 봉령군대인 김태운(子 김범식) |
| ● 학선군대인 김시찬(子 김원신) | ● 경주후인 이탁우(子 이상구)  |
| ● 법광주 김창문(미망인 현승희) | ● 전주유인 이덕남(子 복경수)  |

### 부드러운 것은 언제나 강하다

나무 막대기처럼 딱딱한 것은 부러지기 쉽고  
바위처럼 굳고 단단한 것은 깨지기 쉽다.

오히려 물처럼 부드러운 것은 쇠망치로도 깨뜨릴 수 없다.  
부드러운 것은 소리 없이 스며든다.

물의 흐름을 막아 버리면 물은 빙글빙글 제자리에서 돌다가 물 길 트인 곳으로 흘러간다.

사람들이 제아무리 옹벽을 치고 막아놓아도 물은 보이지 않는 틈 사이로 스며든다.

세상에 스며드는 것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스며든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젖어들기 때문이다.

부드러운 것이 언제나 강하다.  
부드러운 것을 이기려 칼을 갈고 망치를 준비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오기나 배짱으로 부드러움을 이길 수는 없다.  
막무가내로 막아서다가는 어느 순간 부드러움 앞에 무릎 꿇고 만다.

부드러운 것은 따뜻하여 무엇이든 포용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도 물처럼 부드러워야 한다.

생각에 부드러움이 스며들면 얼굴이 너그워진다.  
감추어도 절로 피어나는 넉넉한 미소가 핀다.

고향의 저녁 연기처럼 아늑한 어머니 얼굴이 된다.



- 생각을 읽으면 -

### 회사금 명단

#### ▶ 현금 회사

- 100만원 이상 : 최현규, 홍로지부교인 일동, 최현우
- 50만원 이상 : 최영래
- 30만원 이상 : 조옥희, 홍로지부교인 일동
- 20만원 이상 : 김기철
- 10만원 이상 : 나준섭, 박종락, 안상원, 황수업

#### ▶ 물품 회사

- 석영일(명원타올), 김창범(넘버원 농장), 최춘자, 이미경, 백용란, 오동구, 정옥순, 양태혁, 유희자, 이경례, 안정숙, 손만순, 장시운, 민송순, 이장성, 김상순, 이규식, 박종석, 박선례, 김순예, 오영순, 민명현, 김필경, 유만준, 양옥순, 익명 등